

學事運營과 그 質的 向上 方案

韓 宗 哲

(延世大 心理學科 副教授)

I. 序 言

어느 수준의 敎育을 막론하고, 敎育에 있어서 質的 問題는 우리가 당면하여 왔던 가장 重要한 課題 중의 하나이었다. 특히 現代社會가 高度로 産業化되면서부터 高等敎育의 대중화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高等敎育의 質的 向上的 問題는 더욱 심각한 問題로 대두되게 되었다. 더우기 최고 敎育기관인 大學院 敎育의 質的 問題는 한 나라의 모든 專門分野의 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 된다는 점에서 중요시되고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社會에서는 한 國家의 국제경제상의 경쟁력을 強化하는 데 가장 重要한 關鍵的 要因은 바로 이러한 專門的 知識이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敎育법에 따르면 大學院의 敎育목적은 “大學敎育의 目的을 일층 精深하게 追求하는 동시에 學術研究의 지도능력과 獨창력을 함양함을 目的으로 한다”¹⁾고 규정되어 있다. 이 점에 대하여 金蘭洙²⁾는 大學院의 機能을 다음 세 가지로 集約하고 있다. 즉 첫째로 大學院은 우리 社會의 社會的 및 文化的 통합 기능을 수행하는 창조적 축추역을 담당할 수 있는 體制를 갖추어야 하며, 둘째로 社會 및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 전략, 기술개발의 중심체로서 經濟高度化

에 요구되는 두뇌산업 조직화의 軸추역이 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敎育內的인 측면에서 高等敎育의 敎育 및 研究機能의 향상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大學院의 敎育목적에서 一般大學院과 專門大學院의 敎育목적을 分明하게 區分하여 分類할 수 있는 기준은 찾아볼 수가 없지만, 이들 두 大學院의 敎育적 기능의 수행에 있어서 어디에다 우선적인 重點을 두어야 하는가에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즉 一般大學院의 경우는 그 敎育적 기능을 심오한 學術적 이론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獨창적인 연구개발과 앞으로의 敎授要員의 양성 및 再敎育에 보다 重點을 둔다면, 반면에 專門大學院의 敎育적 기능은 社會의 각 專門分野에서 필요한 中堅指導者를 양성하고 재敎育하는 데 그 重點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이제 모든 社會가 의도적으로 개혁과 변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大學院의 敎育목적은 심오한 이론과 새로운 지식의 창출에만 머물 수는 없는 것이다. J. MacDonald³⁾가 지적하였듯이, 이제 大學院의 敎育目的에는 정부 및 상공업 기관이 필요로 하는 高度로 훈련된 새로운 전문가의 양성과, 보통 수준의 전문가로 하여금 좀 더 능숙한 태도로 그들의 일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급훈련을 제공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高度의 專門化로 변모되어 가고 있는 現代社會가 지속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각 專門分野에서의 훈련된 高級人力, 技術人力, 管理人力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전문적 교육의 필요성은 필연적인 것이고 이러한 專門의 敎育은 바로 대학의 大衆化의 추세에 따라 大學院에서 遂行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先進國의 경우 大學院이 增加하게 된 要因으로 高級 專門職 지도자의 사회적 수요 增大, 새로운 知識의 폭발과 學問의 專門化, 未來敎授要員의 確保, 敎育을 生産性, 投資的으로 보는 敎育觀의 變化, 사회적 平等化와 사회 이동, 국제경쟁과 國際協力の 增大⁴⁾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高度의 산업사회에 발현하고 있는 모든 나라가 적면하게 되는 共通의인 要因인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1960년 이후 高度의 經濟成長을 이룩하면서부터 점차적으로 專門職이 다양화되었고, 이에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각 專門分野의 專門大學院을 設立하게 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는 1959년에 서울대학교에 行政大學院과 保健大學院의 開院을 시발점으로 하여 25년 후인 1983년 현재에는 102개의 專門大學院으로 급격하게 增加하였다. 이는 매년 1년에 平均 4개의 專門大學院이 設立된 것으로 초기 10년간을 본다면 1968년까지는 全國에 19개의 專門大學院이 있었으나, 1969년부터 14년 후인 1983년 사이에는 무려 83개의 專門大學院이 設立되어 1969년 이후부터는 매년 平均 6개의 專門大學院이 나타나게 된 셈이다. 그리고 이를 設立類型別로 보면 현재 102개의 專門大學院 중 약 74%인 74개의 專門大學院이 私立이며, 地域別에 있어서도 약 53%인 54개 大學院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이 지난 1960년 이후에 專門大學院이 急增하게 된 原因이 본래적인 大學院의 敎育적 기능 발휘에 대한 사회적 요청에도 있었겠지만 이는 다른 要因이 더 크게 작용하였다는 점을 배제할 수가 없다. 이 점에 대하여 金蘭洙⁵⁾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分析하고 있다.

첫째는 敎育을 하나의 社會的 계층 이동의 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出世爲主의 敎育觀으로부터 기인된 것으로, 대학교육이 지니고 있던 稀少價

值가 하락됨에 따라, 이를 大學院敎育을 통하여 추구하려는 사고가 크게 作用한 점이다. 즉 大學院 敎育을 받고자 하는 信念이 불투명한 가운데 단지 상징적인 가치(symbolic value)만을 중시하여 大學院에 진학하고자 하였던 경향을 찾아 볼 수가 있다.

둘째는 해방 이후 大學이 급격하게 늘어남과 더불어 각 대학이 敎育적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장식품처럼 대학원 設立을 경쟁적으로 서두른 데서 大學院이 증가하게 된 점도 없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는 소위 具色을 갖추려는 大學당국의 과욕과 이에 대한 무책임한 정치적 배려가 작용하여 大學院이 증가하게 되었던 것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이 이외에도 부족한 大學의 財政的인 수입원, 敎育과정 운영의 용이점, 기존 시설 利用의 可能性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要因에 의하여 이러한 量的인 증가를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간의 專門大學院의 數와 學生增加에 비하여 本質的인 敎育內容의 質的인 充實性이 부족하였다는 사실이다. 즉 量的 增加에 따른 質的 向上이라는 課題가 병행하여 이루어져 왔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그간에 專門大學院의 경우 5學期 혹은 6學期制(제철대학원)의 制度的 장치로 보다 質的인 統制를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院生들의 경제적인 부담만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도리어 昨今에 와서는 專門大學院의 敎育이 단지 學部敎育의 연장 내지는 그것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世評이 있고 보면, 그간에 우리가 專門大學院을 일명 명에스러운 명칭(?)인 特殊大學院으로 불러 왔던 것도 우리는 아닌 성싶다.

여기에서 大學院 敎育의 중요성을 논하지 않더라도 한 국가의 대학원 敎育이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質的인 統制가 이루어지지 않은 무절제한 專門大學院의 量的 增加는 어느 측면에 보더라도 바람직한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專門大學院 敎育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한 方案으로서 專門大學院의 입학 선발제도, 綜合試驗制度 그리고 논문심사제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과 그 改善方案에 대하여 考察하기로 한다.

II. 現況 및 改善方案

1. 入學銓衡方法

1) 現況

무엇보다도 大學院教育의 質的 水準을 유지·향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얼마나 우수한 자질을 가진 학생들을 大學院에 유치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大學院 입학 선발제도의 合理化를 위한 方案을 모색하는 일은 바로 專門大學院 교육의 質을 保障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1982년도의 조사⁶⁾에 의하면 1982년도 제 1 학기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입학 전형방법의 採擇順位를 보면, 전체 專門大學院의 약 65%가 專攻試驗을 賦課하고 있고, 英語시험은 50%, 面接이 40%, 書類銓衡이 약 20%, 그리고 第2外國語를 부과하는 大學院도 7%나 된다. 그리고 그 合格率에 있어서는 약 66%에 이르고 있어 실제로 專門大學院에 志願하였다가 떨어지는 학생의 비율이 志願者의 약 34%나 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만을 분석하여 보면, 현재 專門大學院의 경우, 선발과정을 통하여 어느 정도 質的인 統制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專門大學院의 경우 專任教員이 거의 全無하다시피한 우리의 實情에 있어서는 전문대학원의 모든 시설 및 교원이 그 해당 大學의 전임교원으로 充當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쉽게 대학간의 質的인 차이만큼 專門大學院간의 차이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大學院간의 질적 차이를 뒷받침해 주는 또 다른 조사⁷⁾ 결과를 보면, 현재 專門大學院에 出講하는 교수 중 해당 學部の 전임교원이 아닌 外來강사의 비율이 약 23%에 해당되며, 심지어는 50% 이상을 外來강사에 의존하고 있는 專門大學院이 全體 專門大學院 중 14%나 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적으로 學部の 專任 교원수의 충분한 確保도 없이 專門大學院에 동일한 專攻을 두어 무리하게 학생들을 받아들였다는 실증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비록 조사결과에서는 專門大學院의 合格率이 66%로 나타나 어느 정도 입학시험이 가지고 있는 선발적 기능이 발휘되었다고 하지만, 이러한 대학원간의 차이를 감안하여 볼 때, 각 대학원의 선발기준이 대학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전문적인 학문능력 수준을 판정하는 기준에 얼마나 접근하고 있는가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근본적으로 전문적인 학문 수행능력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判定하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보다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合理的인 선발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2) 改善方案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획일적이고 固定된 입학 전형방법에서 탈피하여 보다 다양한 전형방법에 의하여 학생들을 선발하여야 한다.

一般大學院과는 달리 專門大學院의 경우는 각종 產業分野에 종사할 專門的인 관리인·경영인의 양성과 현지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재교육이라는 교육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단일하고 획일적인 방법이나, 일정한 비율에 의한 固定된 선발기준보다는 多元化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수가 있을 것이다.

例示的인 方案으로서 定員의 일정한 비율내에서 출신 學部 高學年의 內申成績과 일정한 수의 지도교수(혹은 추천교수)의 추천서의 내용을 크게 反映한다든가, 혹은 志願者의 所屬機關長의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反映할 필요가 있다. 이는 學部 卒業生들 중에 성적이 매우 우수하지만 個人的인 與件에 의하여 現職에 종사하게 될 경우, 이들을 유치할 수 있는 方案이 될 것이며, 또한 오랜 實務的인 經驗과 專門的인 課業遂行의 經驗이 많은 現職者들을 유인할 수 있는 하나의 方案이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開放的이고 다양한 전형방법의 실시에 따른 몇 가지 前提되는 要件은 있을 수가 있다. 즉 각 大學의 成績評定의 엄격성과 공정성이라든가 혹은 추천교수 및 소속기관장의 추천서의 신뢰성의 문제 등이다. 그러나 이는 단계적인 실시를 통하여 개선될 수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동일 高等教育機關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이나 혹은 現職에 종사한 志願者

의 경력과 업적 등을 고려하는 방법을 들 수가 있을 것이다.

2. 綜合試驗制度

1) 現況

綜合試驗의 本來的 機能은 學位論文 提出資格을 判定하는 것이므로 이는 바로 學位論文의 質의 向上을 期하는 主要한 要件이다.

즉 大學院에서 所定의 교과목을 이수하고 學位論文을 提出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 전공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어느 정도로 성취하였으며 논문작성에 필요한 연구능력과 자질을 구비하고 있는가를 確認한다는 것은 學位의 公正性을 위하여 必要不可缺하다고 할 수 있다.⁸⁾

P. L. Dressel⁹⁾은 綜合試驗의 目的을, 첫째 專攻學問分野에 대한 綜合的인 評價이어야 하며, 둘째 學位課程 이수를 통해 얻은 專攻知識을 정리하여 學位論文作成에 이바지하고, 셋째로 試驗의 結果를 大學院生의 長期的인 學術的 成長可能性에 대한 個別的 評價의 기초자료로 活用하고, 동시에 大學院 教科課程 運營에 대한 綜合的인 평가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982년도 현재 102개의 專門大學院에서 실시된 綜合試驗의 合格率¹⁰⁾은 평균 약 79%로 나타났다. 地域別로 볼 때, 서울에 소재하는 專門大學院의 경우는 약 77%이었고, 地方의 경우는 83%로 도리어 地方 專門大學院의 合格率이 더 높았다. 같은 年度의 一般大學院의 경우는 평균 72%로 專門大學院의 合格率보다 낮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나타난 조사결과만을 놓고 전체적인 종합시험에 대한 質을 判斷하기는 어렵다. 一般大學院과 專門大學院에서 실시하는 綜合試驗의 科目數나 問題의 難易度 등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一律的으로 比較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一般大學院보다는 專門大學院의 학생들의 質의 水準이 떨어진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것이고 보면,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볼 때, 專門大學院의 綜合試驗 관리의 公正성에 대한 문제점을 매제할 수는 없다.

1970년초에 한 專門大學院의 綜合試驗 관리에 깊이 관여했던 筆者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客觀

式 출제시 綜合試驗의 合格率이 약 40~55%인데 반하여 主觀式의 綜合試驗 출제시의 綜合試驗의 실제적인 合格率은 65~90% 범위로 상승하였다. 이는 主觀的 出題方式 自體의 非妥當性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綜合試驗의 엄격한 採點의 公正성과 실시에 많은 問題點이 있음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2) 改善方案

專門大學院의 效率的인 教育課程 運營과 學位論文의 質的 向上을 기하기 위해서는 綜合試驗 운영 및 管理에 대한 制度的인 強化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前述한 바와 같이 大學院에 있어서의 綜合試驗制度가 가지고 있는 機能은 大學院教育의 質的 向上의 문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綜合試驗은 그 實施 自體보다는 실제 實施上의 절차나 技術的인 측면에서 그 強化策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例示的인 몇 가지 方案으로서 먼저 시험 형태에 있어서 현재 대부분의 專門大學院에서 筆答 考査로서만 綜合試驗을 대신하고 있는 形態를 口述시험과 筆答시험으로 분류하여 口述시험의 比重을 종합시험에 賦課함으로써 종합시험에 대한 公信力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出題方式에 있어서도 完全 主觀式보다는 일부 精密하게 제작된 客觀式 문제를 併行함으로써 綜合試驗採點의 公正性을 기하는 方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例示的 方案으로서 綜合試驗의 出題 및 管理上의 公正性이나 一貫性을 유지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의 教授가 한 科目을 協同적으로 出題하고 評價하는 方案도 생각할 수 있으며, 인접 專門大學院간의 協議體를 통하여 동일한 專攻分野에서는 專門大學院간에 共同 出題方案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3. 學位論文 指導 및 審査制度

1) 現況

大學院에서의 학위논문 심사는 大學院 교육의 質的 統制를 위한 마지막 수단이 되며, 이는 大學院 教育의 質에 대한 綜合的인 評價의 主基準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학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學位論文의 作成은 앞으로의 教育

및 研究分野에서의 活動의 水準을 豫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要因이 되는 것이며, 大學院의 입장에서 본다면, 大學院 敎育의 質的 水準을 判定하는 중요한 根據가 된다.

1982년 102개의 專門大學院 중 65개의 大學院을 對象으로 조사¹¹⁾한 바에 의하면, 敎授 1인당 平均 指導 院生數는 2.4명으로 나타났으며, 3명 이상을 지도하는 경우도 약 19%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 67개 조사 대학원 중 약 13%에 해당되는 대학원에서는 논문지도 교수의 20%가 外來강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3%에 해당되는 전문대학원들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院生들의 논문 지도를 外部강사에 依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學位論文의 質을 保障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경우 專門大學院의 專任教員 確保率이 거의 없다시피한 상황에서 한 교수의 지도 원생수가 平均 2.4명으로 나타난 것은 실제로 質 높은 논문지도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專門大學院生들의 지도 교수들의 대부분은 學部의 專任教員이므로 學部의 강의 부담과 一般大學院의 碩·博士學位 課程의 강의 및 논문지도까지도 담당해야 하는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專門大學院의 學位論文의 質을 向上시키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들 碩士學位 論文의 심사 통과율의 조사에서 보면 약 94%로 도리어 一般大學院의 學位論文 심사 통과율보다도 높았다. 또한 專門大學院의 경우 國·公立 專門大學院의 學位論文 심사 통과율이 87%인데 반하여 私立 專門大學院의 경우는 96%로 나타난 점도 특이한 현상이다.

이상에서 나타난 조사 結果만을 토대로 比較하여 볼 때 現在 大學院別로 실시되고 있는 學位論文 심사기준에 차이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2) 改善方案

學位論文의 質的 向上을 기하기 위하여 學位論文에 대한 지도와 심사기준에 대한 제도적 強化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學位論文의 質을 向上시키면서 논문지도 교수 선정과 심사상의 절차와 운영방식에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차이점을 해소시키기 위한 보다 공정하고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성은 매

우 크다고 하겠다.

먼저 學位論文 指導의 충실화를 위한 例示의 方案으로서 한 학기당 한 교수가 指導할 수 있는 院生數를 制限하여, 이를 學點化하여 교수의 책임강의의 부담량으로 換算해 줌으로써 學位論文의 質을 높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學位論文 지도교수의 配定 時期에 있어서도 현행 대부분이 5學期制인 야간 專門大學院의 경우 3학기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2학기 직후에 配定함으로써 지도교수의 강의 및 지도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學位論文 審査制度에 관한 例示의인 方案으로서 심사위원 구성에서 校內 교수로 3명을 구성하는 현재의 제도에서 4인 중 1인은 필히 他大學의 專任教員으로 構成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여 學位論文의 質的 水準을 높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76년의 조사¹²⁾에 의하면, 조사 대상이 되었던 專門大學院의 약 11%가 단 1회의 논문심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學位論文 심사 회수를 2회 혹은 3회로 制度的으로 규정하여 실시함으로써 學位論文의 內質化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學位論文 作成 대신에 이에 해당되는 學點을 履修하여 所定の 學位를 취득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는 있으나, 이는 우리의 경우 아직도 시기상조라는 느낌을 준다. 왜냐하면, 專門大學院의 경우 모든 學事運營의 合理化를 기하지 못한 狀態에서 이러한 制度는 도리어 현재보다 專門大學院 敎育의 質을 더 하락시키는 要因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學期當 수업료 제도로 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는 院生들에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다.

Ⅲ. 結 語

이상에서 皮相의이나마 大學院敎育의 質的 向上을 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入學試驗制度, 綜合試驗制度, 그리고 學位論文 지도 및 심사제도 등 學事運營에 대한 몇 가지 例示의인 方案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方案들은 실제로 시행하거나 운영하는 데 부딪치는 문제들도 많을 것

이며 또는 시행 과정에서 補完하여야 할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本質적으로 教育의 質的 向上을 위한 統制란 어느 하나의 方案으로 解決될 수 있는 性質의 것이 아니며, 또한 어느 하나의 制度的인 改革이나 革新으로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大學院教育의 質的 向上을 위한 모든 제도적 장치가 相互有機的인 關係로 이어지고, 相互補完的인 協力體制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大學院教育의 質을 保障받게 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大學院教育의 質的 向上의 문제는 그 解決過程에서 여러 가지 難題들이 山積되어 있겠지만, 이는 大學人들에 의하여 自律적으로 大學院 學事運營에 대한 效率的인 方案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이 集約될 때, 비로소 實現될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맞이하게 될 앞으로의 사회는 그 기능의 分化로 細分化·專門化됨에 따라 高度의 專門職을 遂行할 수 있는 高級人力을 더 요구하게 된다. 이에 따라 大學院 人口의 增加는 필연적인 추세라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아무런 質的 向上을 위한 統制方案 없이 量的인 增加만 가져온다면, 그리하여 專門大學院의 學位의 本質的인 가치가 內面的인 가치보다 外面的인 가치에 더 중점을 두게 된다

면, 그리고 大學院 學事運營의 非合理的인 要件이 院生들을 誘致하는 하나의 要因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大學院教育에 대한 自律性마저도 크게 잃게 될지도 모른다. *

<註>

- 1) 대학원 규정, 문교부 훈령 第8號(1953.10.20).
- 2) 金蘭洙, 金萬圭, 大學院教育: 改善方案의 摸索(서울: 三和印刷株式會社, 1977), pp.7~8.
- 3) J. MacDonald, "The Topmost Layer: An Examination of the Purposes and Functions of American Graduate School," R.M. Pavalka (ed), *Sociology of Education: A Book of Readings* (Itasca, Illinois: F.E. Peacock Publishers, Inc, 1968), pp. 278~279.
- 4) L.B. Mayhew, *Graduate and Professional Education* (The Carnegie Foundation of the Advancement of Teaching, 1970), p. 1. 鄭範謨, 鄭元植(編), 教育과 國家發展(教育出版社, 1968), p.33.
- 5) 金蘭洙, "大學院教育의 強化", 韓國教育學會(編), 高等教育의 諸問題(서울: 能力開發, 1974), pp.171~172.
- 6) 金蘭洙 外, 大學院教育의 評價의 研究(文敎部 學術研究助成費에 依한 연구, 1983), pp.42~45.
- 7) 上揭書, pp.27~34.
- 8) 金蘭洙, 前揭書, p.185.
- 9) 金蘭洙, 金萬圭, 前揭書, p.77 再引用.
- 10) 金蘭洙 外, 前揭書, p.45.
- 11) 上揭書, pp.47~54.
- 12) 金蘭洙, 金萬圭, 前揭書, p.82.